

## 제 3 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공모 당선 작품소개

이글은 당협회가 87년도 우유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 3 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956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상 1편 우수작 2 편 가작 5 편 입선작10편 장려상20편등 총38편이 당선되어 이번호에 입선작 5편을 게재하였으며 잔여 입선작 5편과 장려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 고마운 우유

입 선 작

광주직할시 서석국민학교

3~4 신 성 희

“엄마, 잘 다녀오세요.”

대문을 나서는 엄마께 난 언제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는 하늘이 조금 밝아서 뜰의 나무들이 잠을 깰때 입니다.

우리 엄마는 새벽이되면 우리가 일어날까봐 조심 조심 부엌에 나가 우리들 의식사 준비를 모두 해놓으시고 날이 아직 밝기도 전에 우유회사에 나가십

니다. 우유회사에서 우유를 작은 수레에 가득시키고 이집 저집 배달하고 다시 집에 오십니다. 난 처음에 그런 엄마가 싫어서

“엄마, 엄마가 우유배달 안하면 안돼요?”

하고 물었더니 엄마는 웃으시며

“엄마는 새벽 일찍 운동하러 나간단다. 두 시간 동안 걷고 오면 마음도 몸도 상쾌해지지.”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비오고 눈오는 날도 새벽에 나가신 엄마가 너무 걱정되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비오고 추운 날은 엄마가 만나갔으면 해, 엄마 돈 벌러 나가지요?”

아빠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못 나가게 해요, 엄마가 불쌍해요.”

아빠는 한참동안 말이 없다가 나를 안으신 다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린 아기였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고 곧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젖을 찾아 마구 울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대신 내게 상점에서 판 우유를 사다 뜨거운 물에 끓여 먹었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입원하시게 되어 난 우유로 자란것입니다.

엄마의 젖을 먹어본 일도 없지만 난 무럭무럭 자

랐습니다. 우유의 고마움을 엄마는 무엇으로 갚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유가 그렇게 좋은줄 몰랐습니다. 저와 똑같이 낳아 자란 사촌 언니가 있는데 무엇이든 제가 더 잘한다고 합니다. 키도 더 크고 운동도 더 잘 하고 예쁘기도 더 예쁘고.

“그래서 엄마는 내가 무럭무럭 자라는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유를 배달하기로 했단다.”

엄마는 우유 배달을 하면서 운동하러 간다고 하시고 아빠는 건강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난 엄마 덕분에 아침 늦잠이 없어졌습니다. 엄마가 일찍 나가시는 것을 보지못하면 안되니까요

내가 지금도 학교에서나 집에서 물마시듯 우유를 잘 마시는 이유도 우유를 먹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 고마운 우유

### 입 선 작

서울 이문 국민학교

4~5 흥 성 민

지난 가을의 일이다. 십이지장궤양이란 병과 변비로 건강이 매우 나빠지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얼굴에 일그러지시는 안면 마비병에 걸리셨다. 하룻밤 사이에 다른 사람 얼굴같이 한쪽 얼굴이 굳어버린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버럭 겁이났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만큼 고통스러워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가족 모두가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나와 동생이 아프면 어머니는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며 빨리 병이 낫기를 기도 하셨는데 나는 어머니가 아프셔도 도울길이 없어 어린 마음이지만 안타까웠다. 대신 동생하고 싸우지않고 내일은 내가하며 어머니 신경을 덜쓰게 해드렸다.

그러던중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던 어머니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권하셨다며

“엄마도 이제부터 몸에 맞지않는 우유지만 조금씩만 마셔야 할까보다.”

하시며 좀처럼 입에 대지않으시던 우유를 한모금씩 드시기 시작 하셨다.

“엄마는 우유 드시면 배아프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유는 좋은거야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잖니? 엄마처럼 소화기 잘 안되면 할수없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단다 알았니?.”

하시며 매일 매일 조금씩 드시는 양을 늘려 나가셨다.

처음엔 배탈이 나서서 고생을 하시더니 며칠 후엔 다행이 적응을 하시게 되었다.

치료를 계속 받으시고 우유의 양도 늘여 드시면서 어머니의 병환도 차츰 나아지게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무엇보다 피부가 고와지는것 같다며 좋아하

쳤다.

지난번엔 딸기와 수박에 우유를 부어서 화채를 만들어 주셨다. 빵도 우유를 섞어서 만들어 주시는데 다른것에 비하면 훨씬 맛이있다.

요즘에 어머니는 우유 대장이 되셨다. 건강도 몰라보게 좋아지셨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우유 급식을 하고있다. 선생님께에서도 우유 급식을 시작하고부터는 성적도 오르

고 키와 몸무게도 많이 늘어 난것 같다며

“우유, 부지런히 먹어라 건강이 최고다.”

하시며 우유의 우수성을 가끔 말씀하신다.

나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집 식구들의 건강을 지키며 또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게 도와준 우유에게 고마운 말을 하고 싶다.

앞으로도 건강을 위해 꾸준하게 우유를 친구로 할것이다.

## 고마운 우유



서울 잠일 국민학교

5~3 박 현 진

“와! 와! 청군 이겨라!”

“와-! 이겼다!”

넓은 운동장을 꼭 이겨야 된다는 신념으로 땀.

눈을 꼬옥 감고 땀다.

내 가슴에 무엇인가 대이는 것이 있었다.

희디흰 줄!!

내가 1등이다.

“현진아! 네가 이겼어”라고 말해준다.

아직도 우리 청팀에서는 환호성을 지른다.

나는 흠이 묻어있는 두손바닥으로 눈을 훑는다.

그렇게 기뻐 수가 없었다.

나는 달리기를 그리 잘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4학년 때에는 매일 코피만 흘리고 병도 많이 나서 조퇴, 결석등이 예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코피나 조퇴, 결석등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 원인은 우유가 나를 도와주어서 이다. 87년도 부터 나는 우유를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게 순조롭지도 않았다. 우유를 며칠 먹는 동안 설사나 구토등으로 많이 시달렸다. 그래도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하니 안먹을 수도 없었다.

“현진아! 한 달만 먹어보렴, 그러면 금새 우유가 좋아질 테니!”

매일 같이 되풀이 되는 말씀을 어길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제까지도 우유때문에 설사, 구토등을 하였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식을 많이 하던 내가 차차음식을 골고루 먹게 된 것이다.

우유 맛도 유난이 맛이 있었다. 이 일은 한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일어 난 일이었다. 그때처럼 우유먹기 싫어서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설탕이나 코코아를 타서 마시는 일도 없어졌다.

흰 우유를 조금씩 조금씩 먹는 일도 없어 졌다.

이렇게 우유에 습관을 들이자 매일 우유를 서너 병씩 먹게 되었다.

우유가 없이는 못살 것 같이 매일 우유를 마셨다. 그러다 보니 얼굴도 예뻐지고 살도 쪼다. 그리고 다시 없이 기쁜 선물인 건강이 좋아 졌다.

우리 가족들은 나를 '우유광고서'라고 한다. 왜냐하면 가는 곳 마다 우유 광고, 즉 우유를 먹으라고 권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나는 우유를 먹는 고마움을 언제나 느낀다. 내가 1학년 때 우리 옆반에 유난히 크신 여 선생님이 계셨다.

“선생님! 선생님은 어쩌면 그렇게 키가 크신가요?”

나는 당돌하게 가서 물어 보았더니

“응! 이 선생님은 우유를 많이 마셔서 이렇게 커졌단다!”

나는 그선생님 얼굴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지만  
이 말씀 만은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몸도 튼튼해지고 키도 커지  
며 머리도 좋아 진다고 한다. 그런데 우라만 친구들  
은 우유를 먹기싫어 한다. 물론 나도 그랬었지만 지

금은 안그렇다.

“애들아! 한달 우유 수법을 해서 안되거든 먹  
든지 말든지 해!”

나는 우유 먹기 싫어 하는 아이들에게 충고 해준  
다. 때때로 옛날의 나를 기억해 보며……



서울은석 국민학교  
4학년 우 창 완

내 별명은 우유이다. 그 이유는 내 이름의 성을  
따서 별명이 지어진 것 이다. 그런데, 나는 우유라  
는 별명이 있어도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급식 때도 우유를 먹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부터 우유를 먹으라고 엄마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우유가 먹기 너무 싫다.

아이들이 “너는 왜 별명이 우유면서 우유를 먹지  
않니?” 하고 말할때가 있다.

그 때마다 나는 “우유가 우유하고 섞여 봤자 뭐  
별 다를게 있겠나?” 하고 대답해 준다.

그런데, 우유는 참 이상하다. 그 것을 먹으면 튼  
튼해 진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나도 억지로 우유를 먹는다.  
그러나, 별로 튼튼 해지는 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날의 일이 었다. 자습 시간에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났다.

‘어디서 냄새가 나나?’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내 짝의 책상에서 냄새가 났다. 자  
세히 보니까 우유가 썩어 있었다. 그것도, 2개씩이  
나 있었다.

나는 “아니! 나의 사촌을 썩게 하다니.”하고 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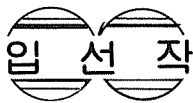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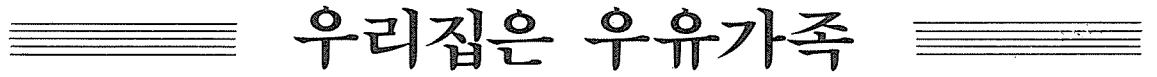
물론 그것은 농담이었다.

그러나, 너무 지독한 냄새였다. 아이들은 코를 막  
았다.

집에 돌아와서는 우유를 마셔보았다. 학교에서  
옆짜이 그냥 썩혀버리는 걸 생각하니 웬지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먹기 싫었던 우유가 참 고소했다.

“어? 이럴 수가, 이런 우유를 내가 왜 진작 잘 안  
먹었지?” 난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달  
라졌다. 지금은 난 우유를 잘 마신다. 그 때 안 마시  
려고 뺑소니 치거나, 코를 막고 억지로 마시던 일을  
생각하면 픽 웃음이 나온다.



서울 소의 국민학교  
5~4 이재경

2째시간 종이 울리자. 여름이 되어 갈증나는 것때

문에 우유를 빨리 내 자리로 가져오니 친구 민종이

가 '우유먹기시험'을 하자고 했다.

“좋아! 번개같이 곧 먹어주마!”

자신만만하게 내가 소리를 지르자 친구들이 웃으며 시계로 시간을 재어 주었다.

“준비! 5, 4, 3, 2, 1, 제로!”

꿀떡꿀떡, 4초 만에 우리 반 '돼이지(아기돼지)'로 별명붙은 내가 의기양양하게 이겼다. 기분이 괜히 좋다.

집에 가서 가족에게 기분 좋게 말했다.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어찌구 저찌고:……”

누나가 이야기를 다 듣다나서 웃으며

“재경아! 그래 시험할것이 없어, 그런 시험을 했니? 하긴 우리 먹보가 그런 시험에서라도 1등해야지.”

하며 되려 놀렸다. ‘그래도 우리반 우유대장인데...’라고 생각하니 누나가 말했다.

“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유는 씹어먹듯이 먹으라고 하시더라.

우유는 칼슘이 많아서 하루 3잔먹으면 좋다더라!” 그러자 곧이어 아빠께서

“아빠 어릴적에는 우유가 별로 없어못먹고 자랐단다.

그래서 아빠도 키가 작은거란다.

그때 우유만 많이먹었다면 그 아랑드롱인지 하는 사람보다 잘생기고 키도 큰 미남일텐데, 피부도 하얗고 말이야.”

“하하하! 호호호!”

아빠의 말씀때문에 모두 웃어버렸다. 아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유를 좋아하는 누나가 키가 크고 몸도 튼튼한것 같다.

“아빠! 나도 앞으로 흰 우유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키도 크고 똥똥하지 않게 노력하겠어요!”

라고 내가 결심한 것을 말씀드리니.

“오냐! 열심히 노력해라. 아니 그러고 보니 엄마도 우유좀 마셔야 쟁는걸! 아예 요번기간에 우유를 배달시키게 아줌마께 부탁드려야 겠구나.

재경이는 아침에 1잔, 학교에서 1잔 꼬박꼬박 마시거라!”

“아빠, 그러고 보니 어느새 우유 가족이 되었네요!”

하고 내가 말하자 모두 또 웃었다. 창문너머, 땀 흘리시며 우유 배달하시는 아줌마가 보였다. 나는 시원한 보리차를 한잔 들고 대문을 열고 뛰쳐 나왔다.

“아줌마! 우리 아빠가 우유 넣어달래요!”라고 외치면서!……

